

다케우치 가문 주택은 에도시대(1603-1867 년)부터 남아있는 아와가마치의 두 개의 건물 중 하나입니다. 다케우치 가문은 거상이자 지역 명사였습니다. 저택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있는 방은 차와 간장, 술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. 저택 뒤쪽에는 예전에는 4 개의 창고가 있었는데, 현재는 하나만 남아있습니다. ‘센레이차’로 알려진 희귀한 차를 판매하고 있는데, 이 차는 지역특산품으로 현재도 생산되고 있으며, 센레이차를 이용해 만든 과자도 인기가 많습니다.